

## 建築 片 想

金 東 珪 (金東珪建築設計事務所 代表)

百科辭典을 보면 建築이란 空間構成이고 藝術性이 있어야 하며 使用價值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神佛에 對한 敬畏 信仰과 僕從이 基盤을 이룬 東洋建築의 樣式이 이루어진 것을 많은 樓閣, 寺刹 殿閣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멀리 Rome에서 Basilica-Romanesque Gothic-Renaissance-Baroque-Rococo 등의 經路를 거쳐 20世紀의 機械文明과 더불어 새로운 建築樣式으로 發展되어 나가는 동안 우리 韓國은 오랜 植民官의 統制文明속에서 外界와 完全히 遮斷된채 1945年 解放을 맞은 우리에게 갑자기 들어닥친 西歐文明이 消化力없이 받아 들여져 또 한번 고초를 겪었어야 했다. 6·25동란 피난 수복 再建-建設의 最短距離를 걷는 동안 우리는 建築에서의 韓國의 傳統을 찾으려고 努力하였고 年前에 同業 韓國建築家協會가 傳統問題를 놓고 Seminar를 開催 한바 있고 많은 人士가 傳統問題를 놓고 學究的으로 發表한 적이 많다.

그러나 아직도 이 問題는 課題와 宿題로 남아있다. 本人이 主로 取扱하는 많은 醫療施設도 아직 그 傳統을 찾지도 못하고 韓國의인 形을 만드는데 基礎作業을 하고 있을 뿐이다. 4半世紀를 넘게 建築人으로서 生活을 하였으나 建築의 藝術性은 官衛建築 (official art)의 範圍를 넘지 못하고 있다. 모든 建物이 設計를 하여서 工事費에 予算이 決定되는 것이 아니고 予算에 맞추어 設計를 하는境遇가 많으므로 이 作業, 工程이 바로 서지 않는限 우리 建築樣式에 對하여 큰 期待를 할 수 없습니다.

過去를 도리켜볼때 1950年代까지는 日政文化에 踏習期였고 主로 日政이 建設한 建物의 維持管理만을 取扱하였고 몇사람의 工兵將校가 韓國의 建築을 左至右至 하여서 建築樣式의 傳統等은 暗中摸索인 狀態이었다. 古 建物에 一郡이라도 保存 할려고 하였으나 力不足이었다.

例로서 지금에 韓國銀行 廣場에서 보자. 新世界 百貨店과 第一銀行, 타일로 變하기 前의 중앙우체국, 韓國銀行의 建物로서 둘러쌓인 古都의 廣場하나쯤은 存続하여도 都市計劃上 그리 支障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古建築에 쌓인 廣場 하나쯤은 造成할 수 있었으나 日帝가 建築한 建物이란 단 한가지 理由만으로 現在와 같이 變模하고 말았다. 當時에는 建築學會의 前身인 建築協會 뿐이었고 活動도 그리 活潑 못하였던 關係로 建築의 樣式이나 傳統에 對한 充分한 理論展開를 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 時期에는 政治的이나 經濟的으로 不安定 하였고 새 建築(New Project)가 없었던 關係로 새로운 樣式이나 定義를 내릴 機會도 없었던 것도 事實이나 6·25 動亂으로 서울 市街를 다태우고 난 후에 비로소 防火建築을 生覺 하였고 그方向으로 理論이 기울어지고 木造에서 組續造로 鉄筋콘크리트造로 바꾸어졌을뿐 建物의 樣式은 個人技에 屬하여 있었다. 이 時代에는 너무 建築이 速成으로 이루어져서 Toilet Street라는 別名을 가진 乙支路. 街를 만들었습니다.

하기야 外國人の 눈으로 보면 當時 乙支路는 타일-色으로서 外國에서는 浴室이나 便所에 부질타일이 建物表面에 으것이 붙쳐져 있으니까 그럴법도 합니다. 60年度 後半期부터 社會經濟가 安定되면서 本格的인 建築이 建設이 始作되어서 서울의 面貌를 一新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樣式問題는 個人技法에 依存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습니다. 前년에 開催되었던 Seminar에서도 藝術에 있어서의 傳統 傳統과 現代 또는 創造로 壓縮 시켜서 論題를 삼았습니다.

同 Seminar에서도 論議되다시피 大体로 傳統은 짐이 된다고 하는데는 異論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榮光의 달로의 行路에서 飲料水와 食品이 그리고 行具가 짐이 된다고 버리고 갈수는 없습니다. 무거운 짐

을 버리고 훌가분한 몸으로 걸걸을 재촉하면 빠를 는지도 모르지만 곧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라면 지고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解決된다면 現代建築의 潮流와 樣式을 決定하는 始發點이 될 것입니다.

近間建築樣式과 傳統問題가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天才인 建築設計者에게 一任하는 時代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 類의 技師들이 잘 協同만 한다면 이 어려운 問題를 解決해 나갈것입니다.

本人이 主로 取扱하는 病院建築에도 같은 問題가 있습니다. 4半世紀를 病院建築과 같이 살아온 나로서도 傳統(작은) 問題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至今까지 都市에 病院만을 生覺하고 計劃하였으나 病院自体가 都市에서 地域社会 開發과 새로운 医療保險 制度와 併行할 때 至今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形体의 病院과 그 類型을 달리 합니다. 지금까지는 “病院은 患者가 病院을 찾는데 病院이 患者를 찾으려나선다. 로서 病院에 平面構成도 달라지고 組織人員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類型은 都市에 既存 病院과 慶南 巨濟島와 京畿江華島에 새로운 形体의 病院을 計劃하고 一部는 竣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都市 病院 (City Hospital)과 地域病院(Community hospital)과의 差異로 建物の 平面 構成과 建物の 樣式 構成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우리

는 새로운 問題와 싸워야 했습니다. 建物과 空間이 問題가 되고 建物과 環境이 學論되어야 했습니다. 勿論 都市에서도 같은 問題는 생기겠지요. 單位建築의 造型은 어느 程度의 藝術性은 成功하더라도 全體의인 造型美나 環境은 좀더 檢討되어야 할 것입니다.

上記한 바와같이 外國의 建築이 그대로 韓國에 適合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同一赤道上的 國家라도 政治體制가 다르고 文化가 다르고 經濟構造가 다르다면 큰 參考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 地方에 建築되는 建物は 그 地方에 그 時代에 政治·文化·經濟에 記錄이 됩니다.

우리일은 꼼꼼히 建物에 그 記錄을 남기는 것입니다. 모든 建築은 그 나라, 그 時代의 歷史와 價值觀에 따라서 調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問題가 그리 쉽게 判斷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4次經濟計劃期間中에 이 傳統問題의 方向만은 決定하여야 할 것입니다. 都市計劃이 道路나 廣場을 主로 生覺할 때는 지났습니다. 法規에 高度나 密度를 論하기 前에 建物の 크기 垜地의 크기 等等이 相關的으로 檢討되어야 하고 調整되어야 합니다. 그 좋은 例로서 武橋洞 再開發地區에서 新築 建물을 除外한 道路나 廣場에만은 共感點을 發見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市庁의 建築委員會가 좀더 建築物의 樣式이나 配置까지 Master Plan을 만들어 놓으면 傳統의 한 樣式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形体가 나오리라 믿읍니다.

## 公 告

會員任들의 作品을 회지 建築士誌에 되도록 많이 収録코자 널리 그 作品을 募集하오니, 會員여러분의 많은 利用을 바랍니다.

특히 地方 特色을 살린 作品을 더욱 환영합니다. 論文, 散文, 趣味 等 會員코-너도 마련되 있음을 알립니다. 會員諸位